



그날만큼은 꿈꾸듯 행복했던 나였으니까

울주명지초 6-3 박현서

시간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막강한 권력을 지녔더라도, 또는 모든 것을 이뤘다저뤘다, 쥐락펴락하는 왕까지도. 또, 시간을 거슬러 주고 싶을 만큼 비참하게 불행하고 불쌍해도. 그런데 왜? 내가 우주의 법칙을 거스를 만큼 말도 못하게 불쌍했던 걸까? 이제부터 나의 칠혹 같은 어둠 속 살살, 희미하게 비춰주었고, 배고픔 속에 달달하고 마음을 녹여주던 초콜릿 같은 한줄기의 가녀린 빛을 따라서 나의 마음속 꼭꼭 숨겨두었던 믿지 못할 이야기가 꺼내보려 한다.

나는 보통의 초등 6학년의 아이들과 아주 조금, 아니 조금 많이 달랐던 아이였을 뿐이다. 평소와 같이 나는 항상 등갯길 손을 맞잡을 만큼 친한 두 그림자에 묻혀 넓디넓은 등갯길 골목을 오직 한 그림자만을 내세우며 공허한 길을 지나간다.

친구와 같이 조잘조잘 얘기하며 먹으라고 떡볶이 아주머니가 놓으신 따뜻한 마음이 담긴 그 두 의자는 마치 두 개의 그림자처럼 나를 한없이

작고 마음이 텅 빈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짜증 나는 것들 중 하나였다. 한숨을 푹푹 내쉬며 계단이 꺼질 듯이 교실에 올라가자 까르르 친구들의 웃음소리, 재잘재잘 참새처럼 말을 이어가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서서히 커진다. 계단만큼 내려앉은 눈으로 교실 문을 열자, 나를 초등학교 인생 6년 동안 괴롭히던 그 지긋지긋하고 굵은 목소리가 나에게 공격하려 든다.

“야! 박현수! 아, 진짜, 나랑 어제 PC방 같이 가기로 해놓고 튀는 게 그게 친구냐?”

“아... 아... 니 그제...”

“내가 이번만 용서해 주는 거다. 저번에 나한테 빌린 5만 원까지 합해서 10만 원 내놔!”

“그건 네가 나한테 뺏은 돈, 그거를 가져간 거잖아!”

“어쭈, 이게 진짜 말로는 안 통하네.”

‘퍽’

눈덩이가 뜨겁게 달아오르며 부어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내 지갑에선 어느새 15만 원이 바람처럼 사라진 뒤였다.

그렇다. 나는 모두가 흔히들 말하는 왕따, 찌질이다. 벌써 나를 불쌍하게 여길 거면 그냥 내 이야기를 듣지 마라. 나는 그렇게 친구도 없고 불쌍한 아이지만 그 덕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책을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공부로는 나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특히 나는 과학을 무지무지 좋아하고 잘해서 이미 진도는 교육 과정을 뛰어넘었고 이제는 내가 그 교과서에 쓰일 실험들을 직접 새로 도전해 오고 있다.

하지만 나는 과학자인 아빠의 발명품 사고로 엄마를 잃은 뒤 그 슬픔을 못 견디고 분노로 바뀌버린 분노 조절 장애 아빠와 사는 중이다. 아빠는

나의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 실력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아빠는 정말 유명한 과학자였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해 엄마와 함께 실험해 보던 중 엄마가 한번 운전해 보고 싶다고 하자 뒷좌석 우선 보호 기능을 켜놓은 것을 잊은 채 그만 뒷자리에 앉은 아빠는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남았지만 엄마는 그 충격과 거대한 폭발로 인해 정신을 잃고 끝내 고작 5살이었던 내 품에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아빠는 그 죄책감에 시달려 뉴스에 ‘자취를 감춘 유명 과학자’라고만 소개되다 이제는 세상도 잊은, 그냥 ‘분노 조절 장애 아빠’가 돼버린 것이다. 나는 그 슬픔을 아빠와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아빠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자서 자신을 갇아먹고 있는 것이었다. 아빠는 남은 내 인생은 관심 없는 듯했고 오직 항상 내 곁에 있어 주는 과학만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때와 똑같이 허무하고 쓸쓸하게 하교 후 집에 가려던 순간 한 전단지가 어두운 내 얼굴을 가려주기라고 하듯 ‘턱’ 붙었고 그 순간 나는 엄청난 광선과 불빛을 보았고 온몸이 찢어질 듯이 아파왔다. 나는 그때 그 순간이 정말이지 길게 느껴졌기도 하지만 그냥 내 얼굴에 붙은 전단지를 떼는, 눈 깜박할 사이의 일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함없이 똑 같았고 나는 집에 들어갔다. 오늘도 고개를 푹 숙이고 길을 걸어서 그런지 오늘은 웬지 땅이 나와 더 가까워 보였다.

집에 들어서자 오늘따라 집에 하하 호호 웃는 소리가 들릴 것 같고 분위기가 밝은 게 아닌가. 나는 문을 열자 말을 이어가지 못할,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엄마가 부엌에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눈을 꿈뻑꿈뻑 뜨며 그 자릴 벗어나질 못했다.

그때 언제 들어도 벽차오를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 밥 먹어. 거기서 뭐 하니?”

진짜 엄마였다.

“엄마…?”

언제 불러도 어색하지만 따뜻한 그 이름.

“어~ 아들 뭐 엄마를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오늘따라 왜 이래?”

“엄마? 엄마!!!”

나는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 품에 안긴 채 엉엉 곡소리 내며 이때까지 참아왔던 걸 전부 토해내었다.

“엄마… 어디 있었어… 왜 안 왔어… 왜 나한테, 엉엉…”

엄마는 동그란 눈으로 나를 치켜떠 보았다.

“애가 진짜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나에겐 도저히 설명 못 할 일이었지만 나는 엄마를 안은 그 한순간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5분이 지나고 나는 8년 동안 먹지 못해 정말 정말 그리웠던 엄마 특제 떡볶이를 먹기 위해 손을 씻으러 갔다. 그때 어떤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게 아닌가.

“악!!!”

“엄… 엄마 애 누구야?”

엄마는 깜짝 놀라 화장실로 뛰어왔다. 그런데 엄마는 화난 표정을 짓고는 “박현수! 장난치지 말랬지.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날 줄 알아!”

그렇다. 이건 놀랄 일이 아니었으니깐. 내가 보고 놀란 그 남자아이는 다름 아닌 5살의 나였으니까. 나는 내 얼굴을 더듬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그때 모든 상황이 내 머릿속 한 곳에 펼쳐졌다.

‘과거의 엄마와 과거의 나…?’

‘서… 설마 과거로 온…거야?’

오늘 있었던 일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는데 그때 그 전단지가 번뜩 생각났다.

‘그때 몸이 막 아프고 머리가 멍했는데 정말 그때…?’

하지만 나는 그런 미스터리보다 엄마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에 엄마와 꼭 붙어 있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엄마! 우리 같이 동물원 가요!”

“어머… 현수가 웬일이래? 그렇게 안 따라가더니… 그래! 좋다. 아빠 오시면 그때 같이 가자!”

순간 내 머릿속에 아빠가 떠올랐다.

‘아빠? 아빠는…’

딱딱딱 피리링~ ♪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고 나는 나도 모르게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내 예상과 달리 아빠가 나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우리 현수, 동물원 가고 싶다고? 엄마한테 다 들었지~ 그럼 이제 갈까?”

화가 가득한 아빠가 아니었다. 그 누구의 아빠보다 따뜻하고 자상한 현수의 아빠, 아니 5살 현수의 아빠였다. 나는 따뜻한 아빠의 모습이 정말 그리웠었고, 돌아온 엄마와, 자상한 아빠. 마치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우리 가족은 차를 타고 도란도란 얘기하며 동물원으로 가 어느 때보다

더 즐겁게 나의 진짜 현실은 구름처럼 사라진 듯 잊고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만을 즐겼다. 목말 태워주는 아빠와 같이 동물원에 가준 엄마,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그 둘과 함께함의 행복함을 느꼈다. 하늘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던 내가 아닌 하늘을 보며 꿈을 그리 는 나, 박현수였다. 내일 또는 모래, 아니면 1년 뒤에 엄마, 아빠와 헤어 질지 몰라도 그냥 걱정 없이 8년 전처럼 온 힘을 다해 부모님과 놀고 싶 었던 나였다.

현실을 지우고 과거를 바꿀 수 없는 나지만 이게 꿈이라고 해도, 설명 할 수 없는 마술이라 해도, 내가 엄마, 아빠라는 따뜻한 이름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과 함께였으니까, 그해 여름 박현수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 했으니까 된 거다.

